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5 1 | 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제9차 정기총회 및 겨울연수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비닐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률 102호 2005년 01/02일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등록이 이강선주, 김희정/펴낸날 2005년 1월 25일

여는 글	딱, 2% 부족한 이때에 우리는...	서은희	2
새해 기획	우리가 꿈꾸는 보육세상		4
	한미어린이집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어린이집	이성봉	4
	2005년에는 나 또한 행복한 보육교사로서...	홍이숙	7
	"어린이집 가서 놀래"	김기숙	8
	십년 후의 보육	이종신	9
	왜 우는 것일까?	이세라피나	13
	아이가 중심이 된 "보육의 향연"을 기대하며	황옥경	14
보육 정책	2005년도 달라지는 보육정책과 예산	이윤경	17
보육 활동			
아동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업무 개시	편집부	27
포괄적사례	평동에는 '평동어린이문화마당' 이 있어요!	평동어린이집	32
좋은그림책소개	달라질거야	김영수	35
그림책을 읽어주고	색깔의 여왕	김은영	37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고정미	39
어린이와 환경	작은 마을 평동엔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	서은희	42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자람터아이들	자람터	47
보육교사일기	흥겨운 아이들을 생각하며...	김나라	48
육아일기	탄생에서 입원까지	김수연	50
중앙활동			
	한국보육교사회 총회	편집부	53
	[특별기고] 내가 본 탁아운동의 역사	이강선주	55
	한일보육교류연수	편집부	58
	돌봄의 보육철학 - 관계중심교육 그 시작을 위하여	김진숙	59
	보육교사처우개선 방안연구 보고서 발간	편집부	61
세상읽기	한국의 마더 콘스, 김혜자씨를 부를까요?	서청은	62
알림란		편집부	65
보육계풍향		편집부	67
소식과 소식		편집부	73

딱, 2% 부족한 이때에 우리는...

서 은 희 · 한국보육교사회 신임대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특히 어떤 큰일을 결정할 때는 아주 쉽게 단순 명쾌하지요, 그래서 후회한 적 있느냐구요? 물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내가 생각해도 탁월했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았답니다.

이번 보육교사회 대표직을 수락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관적인 상황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걸 알기에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이번에도 그냥 "그럼 해볼게" 하고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번 결정도 '그래 탁월했었어' 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보육교사회가 노조설립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상이 잡히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의 역량이 노조로 분산되는 이 시점에서 보육교사회의 조직적 전망과 과제가 무엇인지 그 동안 조직 전체가 함께 고민하지 못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태했거나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이 돌로 갈라지는 이 시점에 주력해야 할 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조였다는 것.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딱 2% 부족했다는 걸 알기에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1.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이편이집

2. 제발 잘 살 수 있는 이편이집

한국보육교사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동안 보육운동의 선봉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꿈으로만 생각되던 보육노조를 출산하느라 진을 빼고 난 지금은 기운이 없어 잠시 움츠러들지만 몸조리 잘하고 나면 아마도 이전보다 더 튼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가더라도 조금씩 하지 말고 찬찬히 갑시다. 예전과 같은 왕성한 활동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 동안 해왔던 일상 활동은 조직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조 출범을 알리는 새벽, 송실대 사회봉사관 창문을 통해 어두운 새벽을 달려 훑날리는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단번에 '이건 좋은 징조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05년, 어렵게 탄생한 보육노조가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쌓이지 못하고 금세 녹아버리는 작은 눈발 같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문득 바라볼 그 때에는 아마도 온 세상을 하얗게 하얗게 물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국보육교사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는 부담감이나 불확실함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조직 전망에 피곤한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1년 중앙은 다음 총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보육세상

“ 200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어 실질적으로 보육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해이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실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보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지형의 변화가 예고되는 올 해, 보육에 몸담은 이들이 꿈어보는 새 꿈을 [우리가 꿈꾸는 보육세상]으로 모아보았습니다. 한사람이 꿈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꿈꾸면 현실이 된답니다요~ ”

1

한미어린이집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어린이집

이성봉 · 회원

애들아- 너희들은 어떤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집인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모두 한결 같은 이야기만 해대네요.. “한미 어린이집이 좋은 어린이집이에요!!”
흑흑..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어린이집은 과연 어떤 어린이집일까요?
심화 인터뷰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좋은 어린이집이요? 선생님들이 잘해주는 어린이집이요-

호중: 놀이가 재미있는 어린이집이요~ 영준이랑 승환이랑 같이 노니까 좋아요.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준: 우리 어린이집이요~ 애들이랑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좋아요.

도현: 블록이 많으면 가지고 노니까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 재밌고 좋아요.

승환: 도현, 호중이 행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정샘반 선생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윤: 친구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 좋아요.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사랑해 주잖아요. 친구들이 놀아주는 게 좋아요.

이 인터뷰를 하느라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고를 위한 유도심문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강력히 날리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렇다면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것인가? 분석해보면

1.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집
2.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린이집
3. 놀이감이 풍성한 어린이집
4.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는 어린이집

어떻습니까? 저의 분석실력! ..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즐거운 어린이집이 되려면 -

1.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있어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네마다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겠습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비슷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마음 편히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2.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재밌게 놀려면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맞아야겠지요? 어린이들이 실내, 실외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한 공간이어야겠지요? 마음껏 뛰어 놀아도 옷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더러운 먼지 먹물 일도 없고, 너무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일 없는 신나는 어린이집이었으면 좋겠어요.

3. 놀이감이 풍성한 어린이집

아이들의 오감을 살려줄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놀이감이 있어야겠지요. 안 그러면 놀이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 나요~ 교재 교구가 풍성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투자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좋은 어린이집이지요.

4.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는 어린이집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적절한 근로시

간으로 체력이 왕성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곳.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아동, 성인을 모두 고려한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한다면 선생님의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 년에 한번마다 이직할 걱정 없는 안정되고 평안한 직장이라면 영아였던 어린이가 졸업할 때까지 늘 곁에서 지켜줄 수 있겠지요.

꿈보다 해몽인가요? (^_^) 각설하고~ 위의 어린이집 꿈일까요?

모두 다 노력하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세요! (^_^)

우리 다 함께 노력 해 봐요~

저출산·노령화 막기 7조원 투입

2004/12/16

2008년까지 보육료등 확대

정부가 급속한 저출산·노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모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보육환경 개선에 오는 2008년까지 4조5천억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등 모두 7조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육료 지원 기준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50% 미만에서 내년에는 60% 미만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에 못미치는 모든 가구를 지원해 출산을 저하를 막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미만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둘째부터 월 3만~6만원의 보육료를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30일분만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도 2006년부터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40만원에서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높하기로 했다.

노령화 대응책으로는 오는 2008년까지 노인전문요양센터 9곳을 세우고, 노인치매병원도 현재 55곳에서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을 내년에 84곳을 신축하는 등 2008년까지 현재의 갑절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조성근 기자 csk@hani.co.kr]

2

2005년에는 나 또한 행복한 보육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홍미숙 · 회원

내가 바라는 보육이라.... 나는 보육교사. 디딤 어린이집 교사이다. 내가 7년간 교사 생활을 한 디딤은 많이 바뀌었다. 환기와 채광이 좋지 않던 상가 건물 1층, 40평 남짓한 곳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40명도 있었다. 그리고 마당도 넓고 햇빛도 잘 들었지만 습기가 아주 많던 주택, 1,2층 60여 평에 이곳에선 아이들이 많을 때는 60명도 넘었었다. 이제는 아주 조그맣지만 마당도 있고 환기와 채광도 끝내 주는 40여 평에 현재는 아이들이 10여명(어린이집이 이전할 계획이라 아이들이 많이 나갔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하는 교사도 많고 각양각색의 개성 덩어리 아이들로 복잡대던 마당 넓은 집에서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재미도 있었고 사고도 많았고(각종 안전사고에 부모들과의 마찰, 사기 사건 등등).... 그리고 지금 10여명의 아이들과 교사 2명. 아이들에게 짜증내거나 야단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아이들끼리의 다툼도 없고. 안전사고 또한...

내가 바라는 2005년의 보육은 교사가 걱정 수의 아이를 보육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놀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정이나 엄마들의 각종 교육 요구에 부담 갖지 않고서 말이다. 그래서 교사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러니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글썽.... 먼저 매사가 돈에서 막힌다.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그러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그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러하고 등등.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욕심. 이걸 다 채우려면 어휴, 아이들도 선생님도 참 바쁘다. 프로그램 하다 옆길로 새도 안된다.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서 번듯한 뭔가가 남아야 한다. 특히 글자, 숫자, 영어. 보육교사가 모모 나라 교사도 아니고, 아이들은 젓 먹던 힘까지 내서 연필을 잡아야 한다.

내가 처음 보육교사를 할 때는 내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마리아 선생님이 될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들 손잡고 노래 부르고 산도 타고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이들과 대화하는.... 2005년에는 나의 꿈에 도전하고 싶다. 아이들의 웃음이 함박 피어나는 어린이집에서 나 또한 행복한 보육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3

“어린이집 가서 놀래”

김기숙 · 고은어린이집 부모

“엄마, 나 책 읽을 시간 없어. 오늘 해찬이랑 결승전 벌이기로 했던 말이야”

“너 엄마는 누가 바쁜 아침 시간 남아돌아서 이러는 줄 알아? 한 권만 가져와. 그것만 읽고 가자”

아침 8시20분. 7살 큰 녀석이 빨리 어린이집을 가자며 여간 성화가 아니다. 요즘 한창 유행중인 딱지치기 ‘뽕’을 오늘 가린단다.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등의 증거를 내세워야 한다는 변이다. 집안의 모든 상자며 뽕뽕한 종이를 구경한지는 이미 오래. 이제는 그날그날 신문조차 재빨리 읽고 넘어가야 한다. 저녁이면 우리 집 모든 종이는 딱지로 재가공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집집마다 아이들 딱지가 3-4상자는 된다고 해요. 유행도 좋지만 아침, 저녁 아이들 딱지치기로 날밤 새겠어요. 좀 못하게 막아주시면 안돼요?”

“어머니 잘 노는 애들이 사회활동 잘 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 어린이집에서라도 해야죠. 아이들이 아침저녁 딱지치고 싶어서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 줄 아세요?”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하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던 녀석이 요즘은 온통 나오는 말 끝마다 선생님 얘기, 친구들 얘기,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눈망울을 공굴린다. 오늘의 간식과 점심은 무엇이고, 무슨 과목이 들었으며, 야외견학은 언제 또 가는지가 그날의 주 관심사다.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유기농 급간식에서부터 정규교육 후 TV 안 켜기, 야외활동 늘리기, 부모참관수업 늘리기 등 아이를 맡긴 부모로 노력해온 흔적을 아이에게서 직접 발견한다는 것은 여간 뿌듯한 일이 아니다.

“너 엄마랑 노는 게 좋아 어린이집에서 노는 게 좋아?”

“영?”

차마 대답을 못하고 내 눈치를 살피는 아이의 얼굴을 찌려보는 일은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4

십년 후의 보육

이종신 · 고강성심어린이집 원장

“위장서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영아반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된 지도 십 년이 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1992년에 시설을 개소하게 될 때 실제로 보육의 정체성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나의 일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모의 욕구에 의해 아이들을 돌보면서, 잘 먹이고 엄마 생각, 집 생각 많이 나지 않게 하며 하루를 재밌게 생활하는 것만을 목표로 일과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문 밖에서부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아이를 맞이할 때면 엄마와 교사 모두 긴장하고, 서로가 눈짓으로 작전을 짰 후 교사에게 아이를 인계한 엄마는 종종 사라지고, 아이는 교사 품에서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울다가 곧 그친다. 그리고 유유히 장난감과 동료들 있는 곳에 가서 언제 울었냐는 듯 놀고 있다. 어떤 아이는 처음 어린이집에 오면 예쁘고 신기한 장난감도 많아서 울지도 않고 엄마를 찾지도 않고 일주일쯤 잘 등원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가자고 떼를 부리기 시작하면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럴 땐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을 대하기도 민망하다. 처음엔 그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함께하는 교사로서 맘을 어떻게 먹고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한 달을 지나고 나면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데 왠지 어려워 말을 못한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이 돌보는 것이 겉으로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기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금전을 얘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돌봄이 노동의 가치영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는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로 보육료를 한 달씩 인식하기보다는 형편에 달는 대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해하여 좀처럼 먼저 지급해주는 부모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또한 맞벌이를 하더라도 전문직 여성은 소수였고 대

부분 영업직, 일용직으로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 한달이 되면 부모가 먼저 교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려워했다.

보육시설을 오픈하면서 다행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배의 도움으로 2년간 교사수급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고, 후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12시간 근무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교사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설장인 나는 보조교사의 역할과 시간외근무는 모두 맡아서 했고, 어린 영아를 받을 때는 교사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아동을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와 교육내용은 둘째 문제였고 우선은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보다 교사에게 먼저 배려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근무시간과 처우에 대한 열악함으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 이동하였다.

초기 보육사업이 시작될 때 상황을 더듬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십여 년 전 시작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동이 맞벌이 부모와 요보호 아동에서 일반가정의 아이들로 확대되었고, 따라서 요보호적 보육욕구에서 보편적 보육욕구로 서비스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보육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으며, 교사의 처우 또한 제자리 걸음과 높은 이직률로 시설운영자들은 아동 우선에 앞서 교사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보육주체들 속에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보육서비스로 대상이 확대된 보육시설들은 보육의 정체성을 찾기에 앞서 아동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며, 아동들의 성장, 발달,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특기교육과 기능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또한 현 우리나라 보육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형식에 따른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의 부담능력의 이유와 더불어 시설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보육단가 이하로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63.2%를 차지하며 서비스자체의 열악성을 안고 가고 있다.

다시 십년 후 보육을 그려본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 교사, 시설장 모두가 기대하는 보육의 그림은 과연 어떤 것일까? 보육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의 될 수 있는가?

먼저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살펴보자. 분명 보육은 기존의 교육과는 다르다. 기존의 교육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계획적인 주입식 교육을 했다면 보육은 아동의 필요와 개별 욕구에 맞는 보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활동과 놀이 중심의 일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유아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기적이며 경쟁적으로 서열화, 계층화하여 이겨야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극단적 개인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아동이 개인보다는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타주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사회 공통의 가치를 체험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보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출생 국가와 지방, 계층, 지위를 막론하고 아동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며, 아동학대, 아동폭력, 아동 유기 등의 말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소망한다.

두 번째로 부모들 또한 자녀양육의 난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모 경제력과 맞물린다면 출산율은 지금 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자녀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양육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출산 후의 부모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육아수당과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성장에 따라 직장을 파트타임으로 전환하여 충분히 부모와 아동이 함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또한 종일제, 시간 연장, 24시간 보육, 장애보육 등 부모의 필요에 따른 시설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된 전문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이다. 보육교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 내에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아동의 인권과 아동 세움의 조력자로서 일정한 보육교사 전문교육을 거친 준비된 자들을 말한다.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제도의 실현은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 또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연수로 강화될 것이다. 보육노동 또한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8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운영에 맞는 교대근무와 대체교사의 확보로 탄력적 근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서 보육교사의 처우도 공보육의 실현으로 국가보조에 의해 이루어져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일정한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의 주체인 시설장들은 공보육의 실현으로 보육료와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한 교사와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지원과 교사에 대한 지도,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은 평가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국가 지도의 객관적 평가는 보육시설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2004년 6월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예산이 2004년 대비 50.1%가 증가한 6,077억 원이라는 획기적인 결실을 얻어냈다. 공보육을 향한 정부와 보육주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만 논의될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가족정책,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다른 정책과도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십년 후 아이들은 '우리'라는 사회적·국가적 울타리 속에서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공보육의 실천으로 보육비용의 국가부담의 원칙이 실현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정착이 되며, 보육의 정체성 확보로 표준보육과정의 진행되고, 교사의 전문성 확보로 보육의 질이 보장되어 아동과 교사, 그리고 모든 보육의 주체들이 행복한 보육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린이(4~9세)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장

2004/12/26

안전띠 매기, 브레이크 반응, 자전거 타기 등 각종 동영상 및 체험학습을 통한 무료교육을 실시(약 1시간). 단체는 물론 방학기간 중 학부모님과 자녀를 환영.

예약 : www.rtsa.or.kr 전화 2230-6059

찾아오는 길 : 서울 중구 신당동 171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상왕십리역 중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내

5

왜 우는 것일까?

이세라피나 · 고양시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

초임시절, 촉감 좋은 곰 인형, 안락한 갈색 소파, 오골 음악상자 그리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유리 칸막이와 방음장치, 적당한 햇빛, 한두 명이 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우는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했다.

3월 마다 영아반 아이들이 파도를 타며 울어댔 때, 4년 내내 아침마다 우는 여자 친구를 맞이할 때, 아이의 작은 상처에도 큰소리치는 부모를 만날 때, 원장에게 억울한 일로 지적 받았을 때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 돌아서며 우는 엄마를 위해... 그 누구라도 혼자 또는 기댔만한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있어야한다고 우는 영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누구 때문에 우는 것일까? 왜 우는 것일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낯설어서, 아파서, 서러워서, 속상해서, 미안해서, 힘들어서... 아마 제 각각의 사연으로 말도 못하고 울었을 것이다.

문득 어릴 적 '애 울리지 마라, 성격 나빠지고 얼굴도 미워진다. 애를 왜 그렇게 울리니?'라며 엄마를 나무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제야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 10년 이란 세월 속에서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읽어가면서 울음의 빈도와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된지 15년째다. 그리고 개정 원년이다. 이 세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다. 그러니 해마다 자라는 아이들의 그만큼 보육 현장의 어려움은 작아졌을 것이다. 큰 변화가 예고된 2005년, 아직은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로부터 시설장, 아이를 맡기는 엄마와 아빠, 보육 행정가와 전문가, 지역사회 기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두 서로가 제 각각의 이유 있는 눈물을 닦아주며 소박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크게 웃는 한해가 되길 꿈꿔본다.

영국에서 체류할 당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 헤메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방문하는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원감에게서 어린이집 설립배경으로부터 운영철학과 이념, 교사진 구성 등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어린이 집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며 시설물을 안내해주고,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시간 반이 넘는 어린이 집 시설 투어를 몇 군데 했다.

방문했던 어린이집들의 운영 모토는 한결같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양육 받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어린이 집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영국의 교육방식은 ‘프로젝트’식 접근이다. 따라서 어린이 집의 거의 많은 경험들이 ‘프로젝트’식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린이집을 방문해도 ‘프로젝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다. 어린이 집 운영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 교사가 그리고 아이와 아이들 끼리 얼마나 친밀하게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얼마나 아이가 ‘자기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임을 강조하였다.

영국 어린이집들의 가정과 어린이 집과의 연계는 인상적이었다. 하루일과가 끝나면 어린이집과 가정생활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부모들은 교실까지 들어와서 아이들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하루의 일과에 대해 교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려간다. 집에 가서도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하던 놀이를 계속 하고 싶어 할 수 있음을 배려한 것이다. 부모가 자기 아이가 무엇을 하다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놀이의 접근성이 위협받지 않는다. 또한 집에서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낮잠을 자고난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잠에서 충분히 깨어날 때까지 흥얼 흥얼 노래를 불러 주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들의 개별적 차이’를 인정해 주는 교사들의 태도 또한 기억에 남는다. 친구들이 모두 밖에 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교실에 남아 모래놀이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교사와 교실에서 논다.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만, 일과를 따라갈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발달 시계’에 맞춘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다. 이

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식도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선택할 수 있고, 선생님과 떨어져 있기 어려운 아이가 선생님께 안기고, 그 주변을 줄줄 따라 다니도 누구하나 ‘애기처럼 군다’고 놀리는 법이 없다. 17개월부터 어린이 집에 다니기 시작했던 우리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는 낯선 친구들과 인해 선생님과 좀 더 오래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 사진을 찍어도 선생님께서 안아주셨고, 간식을 먹어도 선생님과 가까이 앉았으며, 바깥놀이에서도 선생님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 선생님을 떠날 준비가 된 아이들은 우리아이처럼 자기도 안아달라고 보채지 않는다. 우리아이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 가슴에는 다른 아이가 안겨 있었다. 보육에서 개별화의 실천이자 가정과 연계된 보육의 완성인 셈이다.

다른 보육선진국들에 비해 보육시설 운영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에서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기 어려웠다. 무엇이 보육현장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보육 정책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이도 있을 것이고, 보육현장의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한계로 보육현장의 열악함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보육에서 ‘아동이 가장 중심’에 있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아동중심’의 보육은 보육현장의 열악함을 벗어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답론이다. 최근 서구국가들은 박탈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영유아들의 발달적 결핍을 보상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충당되는 사회비용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통해 창출된 여성노동력이 생산해 내는 이윤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육을 여성 노동력 창출이 아닌 국가 인력양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생의 초기 순간부터 똑같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보육정책의 초점이 ‘영유아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 당사자’가 중심에 선 보육이 실행될 때 아이들이 즐겁게 웃을 수 있고, 아이들이 제할 말 할 줄 알며, 자신의 존재를 행복해 하고, 사회의 질서를 배운다. 여기서부터 보육이 출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집단 학급위주의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운영상의 융통성 없이 종일 같은 공간에서 누구나 정해진 일과를 수용해야 하는 일은 아동들에게는 종종 버거운 일이 된다. 아울러 가정과 같은 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의 보육현장에서 되새겨야 한다. ‘가정과 같은 보육’은 물리적 환경이 집처럼 꾸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동들의 개별적 특성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고, 표현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정책의 개발 또한 우리 보육현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었던 보육정책과 관련한 뜨거운 모든 논쟁들은 보육현장의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보육현장을 담아내고 완성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이즈음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합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교향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장과 상황이 달라 다양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합쳐서 '보육의 완성'이라는 교향곡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보육의 향연'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범죄피해 아동 조사때 보호자 동석

2004/12/15

법무부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보호자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등이 범죄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 출두해 증언할 경우 반드시 '신뢰 관계자'가 이들과 동석해야 한다. 신뢰 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친척 정도로 제한된 현행 형소법의 '보조인'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그간 신뢰 관계자의 동석은 성폭력사건 등과 관련된 일부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여러번 같은 진술을 되풀이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진술 장면을 녹화,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가 원하면 범인을 상대로 한 재판에 직접 출석,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하는 등 피해자 진술권도 크게 강화했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a1103@segye.com]



2005년도 달라지는 보육정책과 예산

이윤경 ·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나 그 중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과 예산집행박식의 차이는 보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2005년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와 한계를 살펴본다.

1. 보육교사,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05년 1월 30일 이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이전보다 강화된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보육교사 자격만으로도 놀이방이나 소규모 시설을 바로 설치, 운영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바뀐 법률에서는 일정정도 현장 경험을 가져야만 시설장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어 당분간 신규시설 설치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시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 등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격기준 강화로 인한 전문성이나 질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관련과목이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보육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적용이 06년도 입학생부터여서 역시 향후 몇 년간은 이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보육현장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부는 올해 보육교사 보수교육 예산을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서울: 중앙정부는 10만원의 20% 지원 / 지방은 10만원의 50% 지원) 전체 보육교사의 1/3에 대해 보수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보수교육으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수교육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 또 현행 보수교육 신청이 주로 어린이집(기관)을 통하도록 되어있어 시설장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일선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수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또한 보수교육 신청기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하여 몰라서 보수교육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경력과 업무유형(영아, 유아, 방과 후, 연령혼합, 장애전담, 장애통합, 야간, 연장 등)을 고려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질 높은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예: 양성평등, 인권, 평화 등)

2. 보육시설 환경의 변화

이번 개정으로 보육시설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 우선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고 0세아와 만 3세아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비율을 낮춰 보다 질적인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12개월 미만 1:3 / 36~48개월 1:15)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초기의 기준을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며 여전히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아동수가 많다. 또 혼합연령이나 장애통합의 경우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적 효과와 생활지도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절한 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예: 장애아와 통합할 경우 장애아 1인을 비장애아 3인으로 보고 정원을 편성.) 무엇보다 향후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문제는 보육비용의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정원이 다 차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지하고 있는데 실제 보육아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을 중지하면 결국 남은 아동을 퇴소시키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원은 그것을 초과해서 받지 말라는 것이지 그보다 적은 인원을 보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이 50%이상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보육아동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입퇴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육시설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변동이 있더라도 일정기간(3~6개월)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2) 시설기준도 강화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아동 1인당 면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그러나, 이 역시 기존시설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2만여 개 시설에 다니는 90여만 명의 영유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

이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동 1인당 면적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전체 시설의 정원규모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만3세반에서 줄어든 인원만큼을 어딘가에서 보충해야 된다. 그것이 영아반 추가편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아를 유아와 한 공간에서 보육하게 되거나 기존 영아반 교실에 더 많은 영아를 배치하게 됨으로 해서 영아의 보육권리가 오히려 악화될 위험도 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은 폭력성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정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다면, 아동1인당 면적기준을 모든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3. 취약보육 활성화와 예산

2005년도 보육예산에는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영아반 운영 시 일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시간연장형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 2,0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을 확보하였다.

★ 그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 취약보육이 이를 통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야간보육의 경우 실제 수요에 대한 파악과 야간보육의 특수성을(안전의 문제) 감안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보육교사를 동시에 배치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민간시설에 지원할 경우 적절한 시설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4. 예산 지원방식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큰 변화는 인건비 지원비율의 감소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확대이다. 이 중 보육료지원대상의 확대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범위를 넓히고 전체적인 보육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다.

★ 그러나 현재 보육료 수준이 아동 1명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적절한가의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대부분 적정비용보다 낮다는데 동의하는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의 확대가 인건비 지원 비율 삭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원비율의 감소는 보육교사들의 처지와 조건을 더욱 어렵게 하여 보육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오히려 민간시설의 비영리화를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시설까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이다.

[변화되는 내용 참고자료]

■ 여성부 발표자료

2005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

※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 보육시설의 장에서 시·군·구에서 관리(2005년 7월 31일 이후)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2005년 4월 이후)

○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
-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시설 제외)
-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 가정보육시설은 단독·공동주택에만 설치(기존시설은 5년 이내에 기준만족)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2층과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
②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기존에 2층과 3층에 설치된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면 계속 운영가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국회 여성위원회 예산심사보고서 중)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예산은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영아·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시설유형별 2005년도 예산안은 <표 17>과 같다.

<표 17>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4예산 (A)	'05예산안	
		금액(B)	증감(B-A)
종사자 인건비	218,694	262,243	43,549
국공립·법인	144,250	127,155	△17,095
영아전담	26,839	35,376	8,537
장애아전담	4,723	8,199	3,476
방과후전담	366	384	18
시간연장형	4,389	12,290	7,901
민간영아반	29,532	68,640	39,108
장애아통합	878	1,229	351
아동비율 완화	7,716	8,970	1,254

여성부에서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의 종사자인건비 지원율을 축소하고 <표 18>와 같이 정부지원 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일부 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특히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2004년에 비해 11.8% 감액 계상되어 있음.

<표 18> 보육시설 인건비지원방식 변경안

구 분	인건비 지원방식('04→'05)	지원단가
국공립·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영아반) 90% → 80%	원장 23,143 → 24,300천원/년 교사 16,626 → 17,457천원/년 취사부 12,656 → 13,289천원/년
	(유아반) 45% → 30%	
영아전담시설	90% → 80%	취사부 12,656 → 13,289천원/년
장애아전담시설	90% → 80%	
시간연장형시설	90% → 80%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반당	반당 15만원 → 45~40만원

200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의 63.2%, (국·공립시설의 61.8%, 법인보육시설 48.8%)가 정부 보육료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지원비율을 45%에서 30%로 축소함에 따라 운영상태에 따라 일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인건비지원비율의 축소는 현재 여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부에서는 2005년 예산요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예산 50억 2,100만원¹⁾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는데, 보육교사의 모성보호와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부 발표자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1.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단가]

구분	개념	지원비율		보육료 지원단가	
		'04	'05		
1층	법정저소득층	100%	100%	0-만1세	299,000
				만2세	247,000
				만3-4세	153,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60%	80%	0-만1세	239,200
				만2세	197,600
				만3-4세	122,4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40%	60%	0-만1세	179,400
				만2세	148,200
				만3-4세	91,8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수준	—	30% (신규)	0-만1세	89,700
				만2세	74,100
				만3-4세	45,900

1) 예산 요구안 산출기준 - 서울 : 연간 609명 × 125만원 × 3월 × 20%
- 지방 : 연간 2,434명 × 125만원 × 3월 × 50%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09만원이하	136만원이하	156만원이하	177만원이하
3층	150만원이하	170만원이하	190만원이하	210만원이하
4층	184만원이하	204만원이하	224만원이하	244만원이하

2.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단가] 월 153천원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52만원이하	272만원이하	292만원이하	312만원이하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이하 장애아(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단가] 월 299천원

4.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단가] 만0-1세 6만원, 만2세 5만원, 만3세이상 3만원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20만원이하	340만원이하	360만원이하	380만원이하

5. 참고사항

- '05년도 보육료 수납과 관련하여,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 최소한으로 인상시킬 계획임
- 지원절차 및 문의처

-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득신고 후 지원대상확인 증명서를 보육시설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 월평균소득인정액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가구원의 실제소득 및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월 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시행령안 제28조 관련 별표)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보육시설	1.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았거나 부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소속된 보육관련 교과목의 전임교수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아동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영아전담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비고 :

- 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② 영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③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5.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중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8. 위의 1-7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의사(또는 촉탁의사)나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 6-7호 해당자)
 9.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8호 해당자)
- ④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대학원 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고:

- ① 외국에서 보육교사 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시설 평가인증업무 개시

편집부

200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 10월 여성부 위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 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설치되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유희정 사무국장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에 따라 각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이 힘을 합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해 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각 시설에서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점검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은 더욱 살리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평가인증 업무는 2005년에는 자발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 중 1200개소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인증의 과정]

평가인증은 4단계로 진행되며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 및 선정 1개월, 자체점검 4개월, 현장관찰 2개월, 인증결정 2개월)

제1단계 (인증신청) - 평가인증 신청 및 접수

- 평가인증 참여 시설 선정 및 통보

-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 (1일 1회)

*평가인증 참여 비용은 참여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 계획하고 있다.

•평가인증신청서는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http://kcac21.or.kr/>

제2단계 (자체점검)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7인 이내)

- 자체점검
- 자체개선방안 마련,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조력 - 보육정보센터 등이 지원

자체점검위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각 1인 이상씩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21인 미만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때 시설장과 학부모만으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보내고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시설의 자체점검위원회는 지표와 지침서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후 자체점검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자체점검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제출한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와 동시에 현장관찰자 파견 요청도 이루어진다.

제3단계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파견

- 현장관찰자 평가
-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관찰자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한다. 시설 당 2인이 배치되며 현장관찰 일자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관찰 일은 현장관찰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명의 현장관찰자는 보육시설 관찰 내용, 문서 확인 내용, 시설장과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각각의 현장관찰결과보고서에 수작업으로 기록한다. 관찰이 종료되면 2명의 현장관찰자는 협의하여 1개의 최종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장관찰자는 각각의 현장관찰결과보고서와 최종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현장관찰이 끝난 당일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제4단계 (인증결정) - 인증심의 및 결정

평가인증심의위원회는 비상근으로 40여명으로 구성되며, 매회 5명이 심의한다.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영유아 관련학과 박사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보육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 5년 이상인 자 (시설장 경력만으로는 안 됨)
- 인증통과 시설장 (06년도부터 적용 가능)
- 보육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보육교사 경력에는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며, 이때는 반드시 1년 이상의 보육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인증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의 반영비율은 자체점검보고서 30%, 현장관찰결과보고서 50%, 평가인증심의위원회 의견서 20% 로 총계 100% 이다.

인증결과는 크게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고 모든 영역이 기준 점수를 통과했을 경우

인증유보

- 총점은 기준점수를 통과하였으나
- 21인 이상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하가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하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불인증

-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고
- 21인 이상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증결과의 통보는 개별메일,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 게시, 16개 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진다. 불인증의 경우 개별 메일로 통보하고 사유를 첨부 문서로 설명해 준다.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의 받을 수 있다.

인증시설에는 여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출처: http://kcac21.or.kr/보육시설_평가인증시범운영공청회자료집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3단계 평가기준(안)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자료실-보육정책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시범운영 공청회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통학차량 90%가 불법, 전주 542곳중 등록차 61대뿐...

2004/12/09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의 대부분이 불법 지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주지역 미취학아동보육시설은 542곳에 달하는데도 어린이보호차량 등록대수는 61대에 그치고 있다. 보육시설은 한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운행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90%의 보육시설이 불법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차량은 노란 색상에 경광등·승강구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이 어린이보호차량 구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최고 2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반자동차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규정은 강제성마저 없다. 어린이보호차량을 갖추지 않은 보육시설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시간제 계약을 맺고 운행되는 탓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사업자들이 운행하는 지입 차량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5)는 "원아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마당에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차량 개조는 커녕 운전도 직접하는 형편"이라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원과 보험할인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현장관찰자

〈역할〉

현장관찰자는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증지표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보육현장을 관찰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종사자와 인터뷰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보육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시설장 경력만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단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는 현장관찰자로 참여 가능함)
- 보육교사 경력에는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며, 이 때는 반드시 1년 이상의 보육교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

1기 모집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 까지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1차

서류 전형 - 현장관찰자 신청서 인터넷 접수

- (자기소개서, 설문지 포함) - 개별 통보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 게시 00명

2차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실시 - 개별 통보

3차

교육 및 시험

- 2차 합격자에 한해서 현장관찰자 교육 실시.
- 교육 기간 중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
- 현장관찰자 교육은 2차 합격자에 한해 2박 3일 일정으로 4기로 나누어 진행.
- 현장 투입 직전에 실시하여 효과를 높임. 교육 후 현장관찰 파견일시.

- 현장관찰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최종 선발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배부

〈활동〉

- 교육 종료 후 최종 선발자에 한해 약 20회 정도의 관찰을 나가게 됨.
- 한 보육시설을 2인이 1일 관찰. (영유아 등원시부터 하원시까지)
- 현장관찰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로 관찰을 나가게 됨.
- 1회 관찰 파견 시마다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됨.



평동에는 '평동어린이문화마당' 이 있어요!

평동어린이집

평동어린이집은 수원 지역 중 개발이 더딘 서수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52명 아이들 중 정부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가을 '평동어린이문화마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고, 어린이집이 지역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하며, 공동육아에 대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이라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말이지요.

다음은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 일 시 : 04년 10월 28일(목) ~ 11월 5일(금)

● 내 용

☞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 '함께 보는 영화, 재미있어요' - '릴로&스티치'

진행 : 평동어린이집 / 대상 : 초동학생 / 장소 : 평동어린이집

:: '초동학생과 함께 하는 신나는 연극놀이'

진행 : '해마루' 연극놀이 극단 / 대상 : 초동학생 20명 / 장소 : 평동어린이집

:: '흥미진진 슬라이드 그림동화'

진행 : 수원여성회 그림책모임 / 대상 :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 / 장소 : 평동사무소

☞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

:: 부모교육 - '마주 이야기'

진행 : 박문희(아람유치원 원장) / 대상 : 지역주민 / 장소 : 평동어린이집

☞ 아이와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

:: '음악 속으로 가을이 익어가요'

진행 : 수원청소년오케스트라 / 대상 : 지역의 어린이 및 주민 / 장소 : 평동사무소

어린이집이 지역과 동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은 평동어린이집 개원과 함께 고민해 왔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평동어린이문화마당'은 이 과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민단체도 문화단체도 아닌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사실 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뜻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우리 주변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문화마당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와 어른을 위한 행사, 모두를 위한 행사,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한 행사는 지역의 초동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린이집 놀이터에 매일 놀러오는 아이들과 주변의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네 아이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이런 친분은 우리가 지역과 좀 더 가까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친근하게 느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여하게 되면 자연히 그 부모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어른을 위한 부모교육 '마주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집 부모님들을 빼고 순수한 지역 주민은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목적인 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교육 강화를 지역에 홍보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단지 지역이라면 몰라도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어려운 우리 동네에서 일반 주민이 교육 강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럴 줄 알면서도 이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지역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들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후 어린이집의 모든 부모교육 강좌를 지역에 공개강좌의 형태로 열어 놓을 계획을 갖고 있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아니면 또 그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한 명이 두 명되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슬라이드 그림동화는 평동어린이집의 위탁체인 수원여성회 그림책 반 회원들이 자원 활동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좋은 그림동화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30명 가까이 참여해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이음악회는 기획단계와 달리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그 효과도 아주 컸습니다. 공연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함께 참여한 어른들도 어렵지 않은 세미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면서 오래간만에 정서적

인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실외에서도 이런 음악회를 개최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동사무소'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 것도 큰 소득 중 하나입니다. 동사무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동사무소에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직접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동장이 직접 주민자치위원인 할아버지 산타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년 올 해에는 일정한 시기에 집중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여 1년 중 적절한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우리아이들과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평동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천연염색' 활동이나 '전래놀이마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집 단독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기보다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단체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과 함께 가려는 어린이집의 의지를 작지만 시작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마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달라질꺼야

김 영 수

회원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

앤서니브라운 글·그림

하은미 옮김/아이세움/8,000원



아이들에게 세상 모든 것은 살아 있는 것이 되고...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 주변의 익숙한 어떤 물건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거나, 그 물건을 보면서 다른 물건을 연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방바닥에 깔린 이불의 주름진 모습은 동굴이 되고, 의자는 무대가 되고, 줄넘기는 마이크가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지요.

지금 우리 아들(만3세)을 봐도 언제 어떤 물건이 무엇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쿠션은 배가 되고, 수건을 펼쳐놓으면 바위가 되고, 실내화는 장갑이 되었다가 다시 걸레가 되고, 바가지는 기차가 되고, 이불은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물건들은 다른 것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한 변화는 진실이 됩니다.

이 그림책의 제일 첫 장면에서 주전자는 고양이로 변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부터 마구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이 그림책은 나보다 우리 아들이 먼저 친구 집에서 즐겨보는 그림책이라서 보게 되었지요)

슬리퍼는 새가 될 준비를 합니다. 소파는 악어가 되고 고양이는 다시 뱀으로 변합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 보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더 빨리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조셉의 아빠는 엄마를 데리러 가면서 조셉에게 이제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갑



니다. 도대체 아빠가 말한 게 어떤 걸까요? 조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나가 보아도, 담 너머를 살펴봐도 온통 변하는 것 뿐입니다.

드디어 캄캄한 방문이 열리고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조셉의 여동생을 안고서 말입니다.



좋은 그림책 소개에 소개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소개된 그림책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읽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은 다음호에 게재해 드립니다.

색깔의 여왕

김은령 · 회원

책을 받아 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느 날 너무도 낯선 책을 보고서야 '아차' 하는 생각에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 많은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이들의 놀이에서 반응을 쉽게 보기는 어려웠고 읽어주는 교사의 흥미도가 떨어져 그랬다는 생각도 든다.

6,7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니 "나도 읽을 줄 아는데" 그러며 조금은 시시해 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한번은 책을 읽고 "너희들만의 색깔 축제에 그림을 그려라" 고 했더니 (생일인 아이 편지)

어떤 아이는 책에서처럼 파랑 색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림에 물들이듯 그리고 다른 아이는 빨강 바탕을 그리며 '말' 이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회색이라며 어두운 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이 좋아 했던 것은 축제 장면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그림에 그리면서 별로 꽃을 많이 그렸다.

또 크레용으로 그리면서 주황색을 많이 표현했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축제라는 말이 좋았는지 그 후에도 "춤추는데" 라며 그 장면을 먼저 보길 원한다.

하지만 내용 이해가 되는 아이는 "나는 파랑" 그리면서 파랑색을 가장 무난한 색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놀이에 말이 등장할 때는 책의 내용처럼 너무도 빠르게 휘이-잉 등장하곤 한다.

어느 날은 몸무게가 좀 나가는 아이가 나는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12띠 놀이) 다른 아이들이 "나는 똥똥하니까 말처럼 빨리 나와서 하느님을 넘어뜨려라"라고 하기도 했다.

흑백에서 칼라로 모두 회색이 되었다가 눈물방울 흘리며 각자의 색이 나올 때 글이 없고 색만으로 표현된 장면은 따뜻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놀이를 보면서 글을

읽거나 책 내용 이해가 되는 아이에게 흑여 색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섰다.

큰 아이들에게 더 많은 반응을 바랐지만 짧은 관찰로는 힘들었다.

오히려 책을 덜 접한 5세 아이가 잠잘 때마다 그 책을 찾아 들고 방에 들어간다.

내용을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새 책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못간 어린이 4년새 2배 급증

2004/12/19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난과 이혼 등 가정 해체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6만1천6백92명으로 2000년의 2만8천5백34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미취학 아동을 사유별로 보면 ▲질병 9,113명(2000년 5,095명) ▲발육 부진 3만5천4백54명(1만9천3백49명) ▲해외출국 2,573명(2,626명) ▲연락두절 5,684명(1,197명) ▲사망 7명(9명) ▲기타 8,861명(258명)이었다.

교육부가 분류한 이들 사유 중 '기타' 항목은 2000년에 비해 4년 만에 무려 34배로, '연락두절'은 5배로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기타' 항목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카드빚 등이 늘면서 가정경제가 파탄되거나 이혼·별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통계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중도 포기시키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초등학교 교육을 포기한 '교육적 방임'이 2001년 351건, 2002년 428건, 2003년 486건, 올해 1~9월 4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심지어 부모가 호적에 올리지 않아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도 2001년 17건, 2002년 57건, 2003년 35건, 2004년 1~9월 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향신문 오승주·최명애·황인찬기자 fair@kyunghyang.com]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세번째-

고 정 미

회원 / 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 / 유아국악강사

12월에 '재롱잔치' 행사를 하는 원은 11월 정도부터는 마음이 조금해지면서 정해진 작품연습을 반복합니다. "실수도 하고 좀 못해야지 너무 잘하면 그게 아이들인가요?" 하는 선생님(주로 원장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린아이들이야 그렇지 만 제일 큰 7살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달라야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는 생각에, '재미있게 놀아요. 왜 맨 날 똑같은 것만 연습해요, 재미없어요.....' 하는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외면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재롱을 보시며 기뻐하실 그 날을 생각하자' 며, 험박 반 달래기 반으로 해서 몇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당일에도 잘해주면 참으로 고마운 것이고, 잘하다가도 당일 작품진행이 잘 안되면 이래저래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국악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11월쯤부터 쌀쌀해지는 날씨처럼 몸도 마음도 찌꺼 갈라지며 지쳐갑니다. 1년 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며 수업했던 기억들이 가물거립니다. '전에는 놀던 그대로의 모습을 작품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작은 잔치는 참 재미있는데..... 왜 자꾸 커져만 갈까? 기막히게 예쁜 옷 입고 재롱떠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열광하는 우리들은, 아이들은 진정 행복한 것인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잃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계속 이어나갈 만한 것인가?

원고를 써야하는데, 12월 내내 머릿속이 어수선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말았네요. 일하시는 분들께 먼저 죄송하며, 글머리부터 어수선한 뉘두리를 늘어놓아 읽으시는 분들께도 죄송하네요.

지금의 재롱잔치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부모, 교사)도 다양한 작품을 준비해

서, 아이, 어른 모두가 한해의 수고로움을 달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작은 잔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잔치! '더 작은 잔치! '더 더 작은 잔치!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하루하루 살아감이 날마다 신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수박 따기' 놀이와 '닭과 살쥔이' 놀이를 정리해본 후에, 다가오는 '설'에 아이들과 함께 놀만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강강수월래'의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과 살쥔이〉

배가 너무나 고프는 살쥔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있다. 이때, 너무나도 맛있게 생긴 닭 한 마리를 발견하고, 닭을 꼬서보기로 한다.

살쥔이 "야 닭아 너 오늘 참 맛있어 보인다!"

닭 "나 원래 맛있어"

닭의 말을 들은 울타리들이 한꺼번에 "으악"하며 쓰러진다.

살쥔이 "야 너 울타리들이 왜 지러냐?"

닭 "글쎄 내가 너무 맛있어서 반해서 그런가?"

살쥔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네 새끼 한 마리 다오"

닭 "그래"

닭의 말을 믿고 살쥔이는 쓰러진 울타리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운다.

너무나도 힘든 살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살쥔이 "다 고쳤으니 네 새끼 한 마리 다오"

닭 "싫어"

살쥔이 "아니 나를 속였어! 그럼 너를 잡아먹겠다!"

닭은 도망가고 살쥔이는 잡으러 다닌다.

이때 울타리들은 발을 들으면 안 된다. 닭과 살쥔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엉덩이를 양옆으로 움직이며 살쥔이는 막고 닭은 들여보내고 내보내주고 하는 것이다. 옆

사람과 잡은 손으로 막고 열고 해도 된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놀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닭은 왜 도망을 가고 살쥔이는 왜 닭을 잡으러 가고 울타리는 왜 쓰러지는지...

더불어 살쥔이가 살고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는 00산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듯하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쥐와 고양이' 놀이이다. '쥐와 고양이' 놀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닭과 살쥔이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점과 울타리가 쓰러졌다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울타리들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살쥔이가 쓰러진 울타리를 일으켜 세울 때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이 좋다.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간지럼을 태운다든가, 안 일어나려고 버티고 있는 아이는 '아이고 이 울타리는 썩었나보다' 하면서 앉았다가 옆 구석에다 옮겨놓을 수도 있겠다. 이처럼 재미있게 느껴졌던 울타리의 역할이 '닭'이나 '살쥔이' 역할 못지 않게 재미있고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 소심했던 아이가 '닭' 역할을 했다가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심한 아이는 살쥔이 역할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닭이 살쥔이에게 잡혀서 놀이가 끝났을 때, 닭을 제일 잘 보호해주고 살쥔이를 제일 잘 막아냈던 울타리가 누구인지 뽑아서 닭과 살쥔이를 시켜주게 되면, 울타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게 된다.

연극적인 요소가 있기에 이 '닭과 살쥔이' 놀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수박 따기

"옛날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저-기-저 산 밑에 있는 밭 한 귀퉁이에다 수박 씨를 뿌리셨대~,

흙을 갈아 얹어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대. 해님은 알맞게 햇볕을 주시고, 구름은 알맞게 바람과 비를 주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맺고..... 그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몇 일 전에 봤던 무럭

무력 자란 수박이 얼마나 맛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빨리 그 수박을 드시고 싶으신 거지. 해서 그 날은 수박을 따서 맛을 좀 봐야겠다~ 하신 거야.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깽~ 꼬부랑깽~ 하시면서 밭에 도착해서는, 수박 따러 왔다! 하시니까 아! 이 수박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할머니가 수박을 못 따가게 하는 거야.

뭐 이제 거름을 줬대나, 이제 꽃이 피었대나, 이제 주먹만해 졌대나 하면서.... 할머니가 기운이 빠져서 그냥 집에나 가야겠다 하시는데, 글썽 다 익었으니 따가라고 하는 놈이 있었대. 그래 제일 맛있는 놈을 하나 따갈려고 하는데 아 다른 수박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 어찌어찌해서 힘들게 수박 하나를 따다가 수박을 맛있게 드셨대~ 너무나 맛이 있어서 수박을 또 따러가셨대~"

‘동아(수박)따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옛이야기로 간단하게 들려준다. (정해져있지 않음)

수박을 예로 들어 곡식들이 온전히 자라기까지의 과정을 옛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리세기놀이로 ‘할머니’와 ‘수박’을 정한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선생님이 할머니 역할을 한다)

한 줄로 앉아있는 수박들의 맨 앞에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서있다.

할머니 꼬부랑깽~ 꼬부랑깽~ 수박 따러 왔다!

수박 1 어제 거름줬다! 넌모레 와~라

할머니 넌모래당당~ 넌모래당당~ 꼬부랑깽~ 꼬부랑깽~ 수박 따러 왔다!

수박 2: 이제 꽃폈다! 넌모레와~라

할머니 넌모래당당~ 넌모래당당~ 꼬부랑깽~ 꼬부랑깽~ 수박 따러 왔다!

수박 3 이제 주먹만해졌다! 넌모레와~라

계속진행이 되다가 어떤 수박이 “다 익었다 따가라” 하면 할머니가 맨 앞에 있는 수박부터 맛을 본다. 다 맛이 없겠다고 하다가 맨 뒤에 있는 수박이 제일 맛있겠다 하면서 맨 뒤에 있는 수박을 따가려고 한다.

이때 모든 수박들이 맨 뒤의 수박을 못 따가게 하려고 앞사람의 허리를 꼭 잡으며 앞으로 당겨 앉는다. 할머니는 맨 뒤에 있는 수박을 따가려고 하고 수박들은 못 따가게 하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다.

(실랑이 끝에 할머니가 맨 수박들은 할머니 허리를 잡고 선다. 맨 수박이 한 개 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일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해내는 재미가 있고,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몸다리기 형식의 놀이로 진행이 되고, 할머니 뒤에 허리를 붙잡고 서있는 아이들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꼬리잡기놀이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제일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도 진짜 수박을 두드리보듯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두드리보고 맛보고 두드리보고 맛보고 하면서 “아이 이놈은 맛이 없겠어!” 하면서 분위기를 긴장시키다가 제일 뒤에 있는 수박의 머리를 두드린 후에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 이놈 맛있게 생겼다!” 하게 되면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 설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아볼까요? |

명절이면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놀이를 조직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고, 몸으로 부대끼며 놀만한 장소도 별로 없습니다. 시골이라도 또래들이 없으면 심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슈퍼마켓이나 오락실이나 피씨방이나 들락거리고, 어른들 화투 치는거나 구경해야 하고, 엄마들은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준비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다소 성의 있는 어른들이 되어봅시다.

놀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합니다.

자 빠져봅시다!

비석치기

납작한 돌맹이를 구하기 힘들면(구할 수 있다면, 납작한 돌맹이를 구하는 과정부터 함께 해봅시다. 비석치기보다 비석을 구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가까운 목

공소에 가서 가로세로 한 10센티 정도의 나무토막을 주문합니다.
 놀이의 방법은 세워진 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러뜨리는 겁니다.
 쓰러뜨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합니다.

공기놀이

마찬가지로 문방구에서 파는 공기도 있지만, 공기들을 구할 수 있으면 함께 구해봅니다.
 어릴 적 놀았던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어떻게 노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놀 마음만 있으면 되겠죠?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제기차기

예쁜 한지를 준비해도 되고 신문지나 비닐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겠죠.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용돈을 주는 것도 괜찮겠죠.
 옛날 엽전처럼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와사(?)를 구할 수 있으면 고무줄이나 실로 따로 묶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에는 별로 없고 볼트를 파는 가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종이든 비닐이든 양쪽 끝을 뾰족하게 해서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넣어서 빼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사랑해요' 하면서 하트모양을 만들듯 이요....
 제기차기 실력 또한 맘껏 발휘하면 좋겠죠!

개인겨루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대여섯 명이 둥글게 서서 "동네" "제기" "차고" "놀자" 하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 넘기는 놀이를 해보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놀자"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발로 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은 손으로 해도 재미있습니다.

이밖에도 실뜨기, 옷놀이, 줄넘기, 긴 줄넘기 (새끼 꼬기를 할 수 있으면 함께 새끼를 꼬아서 만든 줄로 줄넘기를 하면 더욱 재미있겠죠!), 연날리기, 딱지치기..... 동등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명절이라도 조금만 짬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던 인천 생협 예술 어린이집의 강나라(꼬꼬)선생님께 원고 부탁을 못드렸었는데(지난 연말에 감당해내기 힘든 큰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서 원고를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상심을 덜고 더욱 큰 모습으로 아이들 곁에 우뚝 서 계시는 선생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린이집을 정리하시더라도 가끔 얼굴 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이들과 우리노래 부르는 시간은 참 신명나는 일이다.

오늘도 신나는 강강술래를 한바탕 부르고난 후, 남생이 노래, 출대장 덩대장, 지와 밭기 노래...

여러 노래들을 강강술래 노래에 맞춰 붙었다.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나무(국악선생님)선생님께서 장구를 치시며 "새야새야"를 불러주셨다.

아이들은 사뭇 진지하게 듣고 있었으며, 그 장단(중모리 장단)에 함께 흥얼거렸다.

노래든, 이야기든 듣고 난 후, 아이들의 느낌, 생각나누기는 중요하다.

〈새야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발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장수 울고간다.

아이들 반응

- 슬프다. (왜? 창문에 낙엽,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생각나요.)
- 옛날 생각이 나요.
- 물총새, 녹두 생각이 나요.
- 파랑새가 나무위에 올라가서 날아다니다가.. 그런데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가시에 찢린 파랑새가 생각나요. 그 파랑새는 무덤에 묻어줘요.
- 파랑새 하니까 파랑새이 생각나요.
-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요.
- 빛의 요정 만나는 생각이 나요.

노래 한 곡에 아이들 생각은 이렇게 다양하다.

우리노래의 좋은 점, 정감이 가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주며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 흥얼거림이 있다는 것에 있는 듯하다.

새야새야.. 낮잠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아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자람터아이들

머리속엔 뭐가 들어있지?

우진이(6세)가 태우(18개월)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태우 누나인 은영(5세) : 화들짝 놀라며, "오빠야! 안돼. 아기 머리에는 숨구멍이 있어서 만지면 안돼!"

우진: "진짜야? 나는 머리에는 뇌만 있는줄 알았는데." 숨구멍도 있나?

엄마가 바쁜 이유

낮잠 시간 7세 창호, 준섭이가 앉아서 문자공부를 하다 초등학교에 가는 이야기를 한다.

창호: "나는 여덟 살 되면 우암초등학교 간데이."

준섭: "나는 엄마하고 연서초등학교 간다."

창호: "근데 내가 우암초등학교 가면 우리 엄마가 역수로 바쁘다 했다."

준섭: "왜?"

창호: "왜냐하면-, 형아 교실에 가서 밥해야 하고 내한테 와서도 밥 퍼야 한다 했다."

준섭: "우암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밥 안 퍼나?"

창호: "거기에는 엄마들이 밥 편다."

준섭: "?"



흥겨운 아이들을 생각하며...

강 나 라 · 회원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해가 바뀌고, 키가 자라고, 체중도 늘어나고...

생각주머니도 커지고..

곧 있을 "졸업"을 앞두고.. 흥겨운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일들을 떠올려본다.

새로운 만남을 갖은 3월!

봄노래와 봄 향기를 함께한 4월!

따뜻한 햇살아래 나들이를 함께 한 5월!

넓은 운동장 축구놀이, 초록빛 녹음을 함께한 6월!

그토록 기다렸던 여름캠프 (비가 참 많이 와 무척 아쉬웠던 캠프.. 더 기억에 남는..) 7월!

신나는 물놀이 한바탕 8월!

가을에 접어들 때쯤.. 잠자리가 유난히 많아 우리를 참 즐겁게 했던.. 잠자리 풍뎡이 9월!

풍성함을 만끽하며 나누어 주는 즐거움을 가졌던 (졸업여행도 있었지?) 10월!

부쩍 자라난 너희 모습을 보며 환한 웃음과 큰 기쁨을 주었던 11월!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하며.. 생각을 함께 나눈 12월!

감사하다.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

나에게 "감동"이라는 선물을 준 아이들..

"선생님 감동이 뭐예요?"

"음..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날듯이 기쁜 것!"

"아——.. 그럼 나도 선생님한테 감동 받은 거예요."

아이들과 친구처럼 한 해를 그렇게 보냈다.

사람과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고 나누어주게 된다.

말투, 생김새.. 행동도 닮게 된다.

너희들(흥겨운 아이들)이 있어 위안이 되고

너희 때문에 살맛난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너희 때문에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너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단다.

너희들은(흥겨운 아이들)선생님(꼬꼬)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란다.

얼마 전 낮잠시간.

잠깐 사무실 간 사이에..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 준다고...

낮잠 자고 일어난 후, 이불정리, 책상 맞추기, 옷도 스스로 다 챙겨 입고 일어나지 못하는 동생들 토닥이며 옷 챙겨주고, "수 놀이" 준비를 위해 6, 7세 짝끼리 앉아 수업준비를 한 너희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세요." 하며,,

너무 놀랬어. 너희들 모습에.. 선생님이 쓸 매직 뚜껑까지 열어놓고..

그 배려, 아름다운 마음까지.. 정말 다 컸구나! 조금만 덜... 아직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데.. 아직 선생님이 채워주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정말 감동이었어! 너무 멋졌어!

애들아!!

(현진, 찬, 호민, 민서, 민준, 기평, 진수, 은섭, 다함, 다빈, 산, 수영, 서영, 수린, 현수, 하연, 예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한다!

함께했던 일들 평생까지 하자꾸나!

탄생에서 입원까지

김수연 · 회원

2004년 5월 1일

병실이 나왔으며 간호사가 새벽부터 찾아왔다 그런데 특실 이란다 하룻밤이니까 뭐 ~ 고민 끝에 결정, 특실로 병실을 옮겼다. 와!~ 이 느낌은 단칸방에서 32평 아파트로 이사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복덩이 덕에 호강한다. 그리고 바로 모자동실을 신청을 했다 (모자동실은 특실만 가능하단다). 잠시 후 모유수유 전문가인 한희수 선생님이 복덩이를 데리고 왔다. 아가야 밤새 잘 잤니? 엄마 꾸쭈먹자! 복덩이 입에 젖꼭지를 열심히 물려보지만 뭐 나오는 것은 없나보다(젖은 3일이 지나야 나온단다). 엄마 뱃속에서 예정일보다 9일이나 더 있다 나와서 그런지 복덩이는 다른 신생아와 다르게 또렷하다. 친구들이 왔다가고 저녁이 되자 복덩이를 데리러 간호사가 왔다. 애기를 보내고 나니 허전하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나왔다 내일이면 또 볼 수 있으니 참아야지.

2004년 5월 2일

퇴원수속을 했다. 자연분만에 영양주사 맞고 특실에서 하룻밤자니 병원비가 33만원이 나온다. 그래도 뭐 제왕절개 한 것 보다는 적게 나왔으니 돈 굳었다. 복덩이도 선천성 대사검사를 받았다 병원 측에서 조리원 까지 차량지원을 해줘서 편안히 갈 수 있었다. 울 신랑은 주차비 안 받는 병원이라고 마음에 든단다.

조리원 도착해서 교육받고 방에서 쉬었다. 모든 일이 꿈만 같다. 우리 딸은 신생아실에서 맨 끝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차차 후배들이 생기면 앞으로 진출한다고 하니 기다려 볼 수밖에, 우리 딸 오늘도 잘 자야한다 엄마 방은 103호란다.

2004년 5월 3일 (생후 4일)

월요일은 대청소라서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딸과 함께 있었다. 발가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 줬다 새근새근 잠도 잘 자는 우리 딸! 새벽 6시에 수유하라는 호출이 왔다 젖 물리기가 쉽



지 않지만 내 젖을 빠는 우리 딸이 넘 귀엽다 유축기로 젖을 짜다. 셋노란 초유가 양쪽 합쳐 20ml

2004년 5월 4일

산후검진 및 황달 검사하러 병원에 가는 날! 영복씨가 반차내고 차 빌려서 왔다 우리 아가랑 첫 외출! 황달수치가 12.6 좀 높은 편이란다. 한 번 더 병원에 오란다. 복덩이의 변이 묽어서 걱정이 된다. 의사는 좀 더 두고 보란다. 아가 아프지 마라, 사랑한다.

2004년 5월 5일

복덩이가 계속 물기 많은 변을 본다. 걱정이다 우리 자기는 어제 8시부터 자기 시작 하더니 오전 10시가 돼서야 잤다 무척 피곤했나보다.

2004년 5월 6일

조리원 생활이 바쁘다. 하루 종일 시간 맞춰 유축기로 젖 짜야지, 젖 짜기 전에 젖 잘 나오라고 핫팩 꺼내서 가슴에 한 20분 대고 있어야지, 아침, 저녁으로 좌욕해야지, 밥 먹어야지, 간식 먹어야지, 산후체조 해야지, 화장실 올 때 갈 때 울 딸 쳐다봐야지.

복덩이는 잠만 자고 젖 좀 물리려고 하면 악을 쓰고 운다. 속상하다. 우유병 빨아 먹는 게 더 좋은가보다. 이러다 모유수유 실패하는 것 아닌가하고 겁이 난다. 울 딸 잠자는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이쁘다.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아깝다. 점점 로얄석으로 진출하고 있다.

2004년 5월 7일

사진촬영을 했다. 우리 아가가 날 닮았나? 차례가 되니 울기 시작한다. 겨우 촬영을 끝내고 발가락 조형물도 뜨고 우는 애기 달래 방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물똥을 싸다. 눈물이 난다. 우리 아가가 왜 이러지 걱정이다. 내일은 꼭 병원에 가 봐야겠다. 황달은 없어진 것 같다. 설사분유 먹이기 시작했다.

2004년 5월 8일

아침 내내 호박죽 같은 변을 본다. 병원에 갔다. 황달수치는 다행히 떨어졌지만 설사가 심해졌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었다.

조리원으로 돌아오니 난리가 났다. 옆방 산모의 아기도 설사가 심해 입원시켰단다.

장엄이란다. 산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원장은 오지 않고, 열방 산모는 빨리 입원시키라고 하고, 날씨는 비오고, 토요일 오후라 차는 막힐 것이고, 응급실로 가야하나?

2004년 5월 9일

오전10시 조리원에서 나왔다. 소아과에 들러 아이 변 검사를 했다. 장엄기가 보인다 고 한다. 그런데 배꼽에서 피가 났다. 염증이란다. 괜히 조리원에 갔다. 후회 된다.

우리 집으로 복태이가 처음으로 왔다. 갑작스럽게 집에 오게 되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달님이 청소해주고 은주가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고마운 친구들!! 너무나 힘든 하루다. 아가야 너도 힘들지? 밤 새 설사하고 분유 먹고 안쓰러워 죽겠다. 엉덩이도 발장게 익었다. 그래도 아가야 집에 오니까 좋지? 그치 복태아!

2004년 5월 10일

아기의 변을 본 산모도우미가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어머님과 아동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탈수가 올 수 있으니 입원하란다. 우리 아기만 병원에 남겨놓고 오자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가야 힘내. 어서 빨리 낳아서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가 내일 올게! 너무 많이 울지 말구 아프지 마라.

2004년 5월 11일

우리 딸을 보러갔다 의사 면담 후 종이에 내 이름을 써서 창가에 보이면 아기를 보여준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겨우겨우 아기침대에 실려 딸이 왔다. 작은 침대에 딸이 누워있다. 잠을 자고 있는 듯 링거를 꽂고 있는 딸이 안쓰러워 눈물이 난다. 얼른 나서야지, 엄마 보고 싶어도 좀 참아. 아가야!



한국보육교사회 총회

2005년1월15일 송실대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소연외 16명의 신입회원의 승인이 있었고, 울산지부 준비위가 1년간의 준비위 활동을 접고, 새로이 울산지부로 승인받았다.

지연 총준위원은 사업보고를 통해 2004년 한국보육교사회 중점사업의 목표가 '권역별 추진위 구성을 통해 보육노조를 준비하자' 였으나,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결과 보육노조 건설이라는 200% 목표달성을 이루어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 대구지부의 지부장들은 지부총회를 통해 한국보육교사회의 산고로 태어난 보육노조의 힘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재 지부구조를 해산하고, 보육노조 지부로 재편하여 회원 역량을 보육노조로 집중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총회 특별결의 제안사항에 토의 시간을 통해,

이후, 변화된 보육지형에 따라 보육을 고민하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우리 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회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집중고민할 수 있는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을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새로 구성될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

한국보육교사회의 이후 전망과 관련한 토의에서는

부산의 장정숙회원은 보육노조에서 교사의 처우개선 및 권리확보를 위한 역할을 한다면, 한국보육교사회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과 시설장 모두의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김영금회원은 조직구조 개편으로 지부조직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후 전망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우리 회와 보육노조의 이중가입에 대한 제안에서는, 회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정회원 회비를 1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밤 12시를 넘기는 마라톤 회의이후

김명선 공동대표와 이윤경 공동대표의 중간사퇴에 따른 임원선거가 있었다.

임원선거에서는 공동대표 서은희, 운영위원으로는 박말신(광주), 박부자(경기), 박은아(인천), 김규(울산)가 선출되었고, 지부총회가 진행되지 않은 부산지부는 총회를 거쳐 당선된 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신임대표로 선출된 서은희 대표는 중년을 한국보육교사회와 보낼 각오를 하고, 새로운 조직의 모습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선 인사를 하였다.

이후 기타토의 시간에서는 보육노조와의 연대와 지원방식에 대해 신임운영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04년 보육노조건설을 함께한 운영위와 이윤경, 김명선 공동대표의 이임식이 진행되었고, 돌봄의 보육철학을 정리하기 위해 수고하신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장 전달, 대표로 오윤정 교육위원이 수상하고 있다.

내가 본 탁아운동의 역사 -빈민탁아에서 보육노조 건설까지-

이강선주 · 서울지부 회원

1990년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9일에는 다섯 살, 네 살 먹은 형이 용철이 남매가 연기에 질식해 죽은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파출부와 경비로 일을 나가야 했기에 아이들은 잠긴 방안에 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며 찾아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남영동 사무실에는 최선희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졸업한 새내기가 탁아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선배는 걱정한 얼굴로 영광도 없고, 사회적 주목도 없으며, 오랜 헌신만이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부천 오정동에서 탁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 교육받을 권리를!

부천에 단 세 개뿐인, 동네에 단 하나뿐인 탁아소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들을 만나며, 어린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배들은 탁아법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했고, 탁아소 막내인 나 역시 부천 역에서 엄마들과 함께 피 세일을 하고, 서명을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꿈이 모여진 탁아법안은 정부의 책임성을 삭제당한 채 1991년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제도적 공간으로 들어 온 탁아는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민간시장에 맡겨진 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마구 양산되던 보육시설은 수익성 있는 여성부업 정도로 인식되어 방송은 앞다투어 보육시설 운영의 투자성에 대해 홍보하였고, 많은 여성들은 단기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로 양성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환한 우리의 슬로건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는(탁아) 곳이 아니라 보호하고 교육(보육)하는 곳이라고 불립니다.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이름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어린이집 놀이방 간판이 즐비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부모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보육사업은 여전히 보육교사들에게 직업적 헌신을 강요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의 노동시간은 내가 일하던 때인 10여 년 전보다 겨우 2시간 정도 줄어들어 하루 10시간을 육박합니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에 걸린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양성과정을 강화하겠다고는 하나, 보육교사의 처우는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참아야 하는지 좀 햇갈립니다.

이제는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뿐 아니라, 그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한 조직논의 끝에 우리는 작년 한해를 보육노조 건설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행복하게 자랄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보육교사와 부모들의 권리를 모두 담아 전국보육노조가 출범하였습니다.

다시 혜영이와 용철이를 생각하며

지금 내 아이 또래였을 혜영이와 용철이를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면 성년이 되어갈 그 아이들의 아까운 죽음과 탁아운동 선배들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처음 남영동사무실에서 내 앞에 놓여있던 삶의 불확실성에 두려워하던 스물넷 젊은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새로운 길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는 든든한 짝이 옆에 버티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 안을 것입니다.

[우리네아이들]의 첫 제호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네아이들을 위해 함께 가는 길에 더 많이 이들과 손잡을 수 있을거란 희망찬 기대를 가져봅니다.

서울 YMCA,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 7편 선정

2004/12/26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어린이 영상문화 연구회는 2004년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 7편을 선정했다.

22편의 추천작품 예심을 거쳐 선정된 작품은 EBS 닥터방 유치원, 뽀롱뽀롱 뽀로로, 부모야 친구들, 내 친구 드래곤, 토끼가 까꿍, KBS TV 검정고무신, MBC 내 친구들의 세상 등 7편이다.

어린이가 뽑은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EBS의 뽀롱뽀롱 뽀로로와 KBS 검정고무신 등 두 편이 선정됐으며, 학부모가 뽑은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은 EBS의 뽀롱뽀롱 뽀로로가 뽑혔다.

[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출처: <http://www.yonhapnews.net>

한일보육교류연수

제 12회를 맞는 한일보육교류연수가 2004년 10월 25일 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한국에서 있었다. 2004년은 일본 보육교사들이 한국을 찾는 해로 8명의 일본인 보육교사들이 한국보육시설을 체험하고 돌아갔다.

2004년 한일보육교류연수에는 연수는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

우선 서울-광주로만 진행하던 연수지를 부산-광주로 진행하였고, 부산지역의 교사 공동체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을 통해 연수자들이 우리 회의 교육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보육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진행되어,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보육현장 뿐 아니라 외국의 경험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연수기간 중의 언어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보육교류의 질적 변화를 가지고자 연수일지 작성이 도입되어, 이후 한일 양국 간의 보육 상황에 대한 공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서로에 대한 인상과 정이 깊게 각자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질 수 있었다.

올해는 한국의 보육교사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해로,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일본연수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돌봄의 보육철학] 자료집 발간

우리 회에서는 보육철학을 정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돌봄의 보육철학]을 발간하였습니다. 새터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함께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보육철학 - 관계중심교육 그 시작을 위하여

김진숙 · 회원

작년, 우리는 그동안 보육활동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시작해서 17년 동안 보육을 해오면서 여러 변화를 거쳤고, 또 나름의 보육방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게 뭐다 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 고쳐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려고 했다.

먹거리, 건강, 바깥놀이, 놀이, 환경, 교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 정리해온 것을 이야기하고, 고쳤으면 하는 걸 정리해나갔다. 이렇게 정한 주제가 다 끝나갈 무렵 '돌봄의 보육철학'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주저 없이 보육활동정리의 마무리를 이것으로 하기로 했다.

첫날, 1장 돌봄이란 무엇인가? 발제를 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렇게 시작한 '돌봄'은 "너무 늦었네. 마치자" 할 때까지 이어졌다.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과 달리 벌써 이렇게 됐어, 가자 할 때까지 이야기는 이어졌다.

새로움보다는 익숙한 느낌, 생각해보던 것을 정리해 놓은 느낌, 완벽함보다는 다듬어지고 채워져야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내용으로 인해 불꽃 튀는 토론 혹은, 아, 이거야 하는 감탄은 없었지만, 이야기할수록 자기 고백이 이어졌다.

돌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어서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포함한다는

중양활동

점에서 위로가 된다. 보육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100을 다 주지 않으면 마음이 찢리고, 때론 비난의 눈길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라는 게 큰 위로가 된다.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아서 발달이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신봉하지도 않고, 그게 다 라고 여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잘 몰라서 오는 한계도 있겠지만, 열려질 수 있고, 내 나름의 이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된다. 물론 나조차도 내가 받아온, 자라온 환경과 사고, 교육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나를 둘러싼 물리적, 인적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한가 보다.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은 너희야' 라고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미래만을 준비하게 하는 것, 앞선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한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어렵고 힘들어 자료집의 구절을 보며 위로가 되기도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옳은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는 겸손도 생긴다.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생활에서 구체화 될 때는 각자가 가진 생각들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도 알게 된다. 똑같이 돌봄을 말하는데, 인권을 말하는데, 적용되어질 때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을 안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며 진정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내가 어떤 관점을, 어떤 철학을, 어떤 방법론을 가졌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행복해 할 수도 있고, 행복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의 행복이 참 보육, 참 돌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며 진정 행복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만남, 사랑이 있는가? 돌봄이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해야겠지.

마지막 남은 토론이 기다려진다.

보육교사처우개선 방안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 2004년 여성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보육교사처우개선 방안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로 노동연구원의 장지연박사가 수고하셨고, 연구원으로 오선영, 구미영, 정지현, 김현미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연구보고서의 간략한 요약을 실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전문은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관련 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큰 틀에서는 근로조건이라는 보편적인 노동자의 문제이다. 현재 보육교사 근로조건 문제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로 등 근로기준의 핵심적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은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이란 아동의 안전과 위생, 영양, 심리적 안정, 지적 자극 등의 조건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호한 근로조건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지나치게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이고 개선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과 둘째, 어떤 방향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보상수준은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와 이들의 헌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곧 보육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 둘째, 보살핌노동(care work)이 얼마나 공식화(formalize) 되어있느냐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진다. 이때 보살핌노동의 공식화 정도는 전문성의 인정 vs. 가족 내 어머니 무급노동의 연장과 관련된다. 셋째, 보살핌노동의 공식화 정도는 관리자(또는 사업주)의 철학(애정)이 아니라 ①재정 ②규모 ③ 보육시스템에서의 위치(국공립, 법인, 민간 등)에 달려있다.

한국의 마더 존스, 김혜자씨를 부를까요?

서정은 · 본회 전문위원

한해가 끝나고 한해가 시작되는 때에, 내 눈을 확 잠은 사건이 있었다. 가슴은 벌렁거리고 눈물이 울컥 나온다. 한편, 내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주위들은 지식과 경험과 내 온몸에서 오는 감각을 이용하고 생각하며, 설새 없이 이 사건을 이해하려 하였다. 왜 그랬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영세민 부부 5세 아들 장롱 속 숨진 채 발견...사인 불분명..경찰 오늘 부검'

혹시 부모가 학대한 것은 아닐까? 다섯 살 아들. 그렇지, 남자아이들의 학대가 여아보다 훨씬 높지.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시점이 되면서, 남자 아이들은 이전보다 두드러지게 활동력과 공격성향이 높아지고, 부모와 충돌이 잦아지기 시작하지. 여아들보다 부모가 더 남아들을 다루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지.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나? 부부싸움하다 잘못해서 아이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영세민이라니.. 생활고가 있었겠군.. 생활고라.. 학력수준과 경제수준이 낮은 부모들의 학대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지.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이 껍질만 데서 오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푼다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사 아닌가? 그렇다면.. 설마 죽기까지 하다니.. 게다가 숨지자 당황스러워 아이를 장롱안에 넣었다니... 아이가 상당히 마른 상태로 발견되었다니.. 이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문제일 것 같은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나?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가 있는 반면, 부모가 대하기에 까다로운 아이(difficult child)가 있기는 하지.. 그렇기로서니 죽을 정도 까지... 아이가 아팠나? 미숙아로 태어났고 하루에 두 세 숟갈 정도 밥을 먹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니....

주변에서 몰랐었나? 어려운 상황을 알렸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었나? 근처 성당에서 도움을 받긴 받았다니..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 등록도 하는 판인데... 지역의 사회

복지 시스템이 없었나?

지난 12월 18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30대의 아버지는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진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아이들은 2살, 5살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생 큰 딸이다. 2년 전 실직하여 노동하던 아버지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욱 벌이가 시원찮아, 한달 중 1주일만 아예 굶고, 하루에 한끼는 매일 굶었다한다. 이 아이가 죽기 일주일전에도 동사무소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30대에, 노동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보조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당국의 확인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들 가족이 생활고를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는 등 당국의 '무관심행정' 이 김군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 여년 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 시대에 어린 아동들이 집밖에서 노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생각과 가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아동의 노동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는 6명중 1명의 아이가 일을 했다. 10세에서 15세 사이의 7백만 명의 아이들이 일을 한 셈이다. 10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남부농장의 농장주들은 흑인아이들을 그들의 부모보다 더 많이 고용했고, 아이들은 미국 이곳저곳의 농장과 공장, 거리에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했다.

어린이 노동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가 중 한 사람이 아이랜드 계 이민자인, 일명 Mother Jones (Mary Harris Jones)이다. 마더 존스는 노동운동가였는데, 펜실베이니아 섬유공장 파업을 지원하면서 75,000명의 공장 노동자 중 1만 명이 어린이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 중 상당수가 손, 발이 절단되는 등 아이들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마더 존스는 아이들의 참상을 폭로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쉬고 있는 여름별장까지 먼 길을 다수의 아이들과 행군하였다. 비록 대통령은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미 전역에서는 어린이 노동에 대한 범죄행위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펜실베이니아에서는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노동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수차례의 옥고와 탄압 속에서도 마더 존스는 어린이와 노동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지옥과 같은 투쟁'을 계속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부모는 가난하고 장애자이며, 아이는 희귀병에 생존이 위태로운데, 당국의 무관심행정까지! 하면서 사회와 국가만을 대상으로 흥분할 생각은 없다. 사회와 국가의 무책임함을 격앙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진 선명함을 드러냄으로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불특정한 대다수를 향한 비판과 부글거림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후에 찾아온 침묵, 이때가 비로소 내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사회와 국가의 책임방기로 인해 아동의 생명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닌가? 살인자에게 달려들어, 이놈 저놈 소리 지르는 것은, 소리 질러 대드는 것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차원적인 반응이 아닌가?

사회와 국가가 저지른 죄목을 열거해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도 밝혀야 한다. 현장검증도 해야 한다. 연루된 모든 기관과 구성원들의 책임량도 가늠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기사에도 사회와 국가의 무책임함을 열심히 보도했으나, 살인 또는 살인 방조를 행한 정부당국을 고소할 만큼 간행이가 큰 아동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서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나서겠는가?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왜 이리 됐을까? 한국의 마더존스는 어디에 있을까? 대통령 영부인이나 김혜자 씨를 불러야 할까? 한국보육교사회나 전국보육노조는 어떨까? 회원으로 있는 나는 어떨까?

한 아이의, 우리 어린이집의,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마더존스를 꿈꾸며.. 2005년을 열자!!

돌봄의 보육철학 자료집 판매

현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부모들, 동료교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보육현장에는 보육철학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보육교사로서 보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며 아이, 부모, 동료들과 만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화두로 삼고 진지하게 고민 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보육현실에서 보육교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돌봄의 보육철학을 제안합니다.

이제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우리의 보육철학을 새롭게, 그리고 올곧게 세우고자 합니다.

186쪽 10,000원(정회원 7,000원) 주문처 : 02-2275-8505 로 연락하시거나 kdt@chol.com 로 메일 주세요. (담당자:이강선주) 입금처 : 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





1장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의 개념 11

돌봄과 보호 12

돌봄과 자기희생 17

돌봄의 도덕적 구성요소 21

돌봄의 특성 27

돌봄의 요소 27

돌봄의 희식상대 28

돌봄의 관점에서 본 도덕교육 32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돌봄' 35

전문성과 돌봄 35

돌봄 윤리의 사회구조적 측면 50

돌봄의 관점에서 본 교사-아동간의 교육적 관계 55

2장 우리의 보육현장 다시보기

발달이론, 아동중심교육 다시 보기 69

유아교육과정의 주요 이론체계-체계별주의적 접근의 출현 71

아동발달이론 해체하기-아동발달이론의 근본전제와 감추어진 한계들 75

아동중심교육 및 놀이중심교육의 문제점 79

글을 마치며-발달이론을 넘어 돌봄의 관계 이르기 88

아동의 생활과 제도화된 보육 91

여리달 91

본론 96

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시설 / 아동의 생활과 제도화된 보육

논의 126

제언 : 보육의 제도적 맥락속에서 돌봄관계의 정립 130



3장 돌봄 보육철학 그 시작을 위하여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형성 139

들어가는 글 139

반성적 사고와 지식의 개념 142

실천적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요인 153

실천적 지식의 구성 160

글을 마무리하며 : 실천적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의 교사 165

새로운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제언-돌봄의 유아교육과정 168

서론 168

돌봄 유아교육과정의 출발점 169

이론에 의한(理論的) 돌기 / 나의 현장 돌아보기 / 관계의 유아교육과정-돌봄

돌봄의 유아교육과정이란 176

돌봄의 정의 / 돌봄의 대상 / 돌봄 교육과정의 방법론

반성적사고와 실천적 지식 183

결론 185

㉠ 전국보육노동조합 출범식 가져

놀이방, 어린이집 노동자 다 모였다...김명선 위원장 "보육현장 개선 주력"

전국의 놀이방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축이 돼 조직된 전국보육노동조합(위원장 김명선)은 16일 서울 송실대 백마당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 및 창립출범식을 갖고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보육현장 개선을 통한 인권보육실현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사진제공 : 전국보육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94명 중 82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총회 및 출범식에서는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 사업방향 및 예산안 승인, 기타 토의 등이 진행됐다. 보육노조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보육노조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서 김명선씨를 위원장에 이윤경씨를 사무처장에 각각 선출하고, 이날 추인했다.

김명선 위원장은 "끝없이 터져 나오는 추악한 시설 비리와 파행운영으로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보육노동자는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는 보육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참다운 인권보육 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의 민주개혁 △유아교육의 사회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노조는 특히 보육시설의 고질적인 정원초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참교육학부모회 등 유사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육노조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5개 지부와 충남, 대구 등 2개 준비위가 구성된 상태이며, 보육교사 외에도 차량 운전자, 취사부 직원, 사무직 직원 등 보육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01-16 오후 4:46:42 입력

(매일노동뉴스 구은희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 [인터뷰] 장하진 신임 여성부장관

장하진 신임 여성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겠다"며 "보육정책에 주력해 보육정책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서구의 여성운동을 보면 성 문제에 집중하거나 중상류층 여성의 사회진출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가.

A 보육정책에 주력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보육정책의 장기발전계획을 큰 틀에서 마련하고 싶고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고 싶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미약하게나마 출발했지만 보육은 이제 시작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있다. 가족업무 관련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겠다.

Q 전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방향이 바뀌는가.

A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성정책 관련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있어 일반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서구의 여성운동을 보면 성 문제에 집중한다든지, 중상류층 여성의 사회진출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20-30년이 지난 뒤 발견하게 된다. 우리 여성정책에서 이러한 경향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중상류층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여성문제 해결 방안은.

A 여성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모든 부처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부처와 협조하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도 기존의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하겠다.

Q 언론에 신임장관의 명문 가족사'가 부각됐다. 느낌이 어떤가.

A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봤다. 인생을 걸어오면서 제 가족과 한번도 연결시켜 본 적이 없다. 장관이 되는데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얘기가 나와 굉장히 부담스럽다.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지 않는가. 기분이 씁쓸하다. 신문기사를 잘 쓰면 좋지 않겠나.

Q 발탁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정부 각 위원회 활동 경험을 통해 정책업무 과정을 파악하고 있고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성개발원장이 조직을 경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구 시간을 갖지 못했다. 올 상반기 연구실적을 책으로 발표해야겠다 생각하고 지난 일요일에 대전에 갔다.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다.

Q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업무 확장할 계획이 있는가.

A 단기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Q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

A 여성계뿐 아니라 각계 의견을 모아 구체적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여성개발원에 있을 때 대안을 연구했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조금 더 검토하려 한다.

Q 주소가 서초구 반포동인데, 자녀 교육 때문인가.

A 남편이 조선대 교수이고, 저는 충남대 교수다. 둘 다 고속터미널 부근을 벗어날 수 없다. 집은 한 채다. 충남대에 23년쯤 근무했는데 오피스텔을 갖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Q 사회학도로서 여성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A 사회학자로서도 그렇고 여성으로서도 그렇다. 어렸을 때 결혼을 한 뒤 남편을 잃고 혼자 되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내 일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회학이 참 재미있다. 다시 태어나 학문을 선택하면 사회학을 선택하겠다.

Q 육아문제로 얼마나 고생했나.

A 충남대가 있는 대전에 가서 3박4일, 4박5일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 남편이 많이 돌봤다.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 솔직히 집안일은 뺄 점이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http://www.hani.co.kr>

㉠ 2005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 보육시설의 장 → 시·군·구 관리(2005년 7월 31일 이후)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있는 자" 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에 있는 자"로 한정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후 자격증 발급(2005년 4월 이후)

○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
-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시설 제외)
-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 가정보육시설은 단독·공동주택에만 설치(기존시설은 5년 이내에 기준만족)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2층과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
 - ②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기존에 2층과 3층에 설치된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면 계속 운영가능)

출처: <http://www.moge.go.kr/>

㉠ 보육시설선택 객관적 지표

한국여성개발원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개소

여성부는 공공보육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과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1월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국가나 일정 단체가 보육시설을 평가한 후 등급을 매겨 학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인증제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희망한 1200곳을 대상으로 2005년 한해 동안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시설평가인증 업무를 여성부로부터 위탁받는 한국여성개발원(KWDI)은 지난달 3일 보육시설인증사무국을 개소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개

한다.

이를 위해 유희정 연구위원(유아교육학박사, OECD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정책비교연구 (2003년) 등이 있다)이 여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사무국장 밑에 정책개발팀, 교육평가팀, 운영지원팀 3개 팀을 두어 현장관찰자에 대한 체계적 훈련과 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보고서 분석, 보육시설 신청접수 및 선정, 현장관찰인력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KWDI는 국가 차원의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써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think tank' 역할을 통해 연구결과와 정책방향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멘토링을 통한 여성네트워킹 활성화 ▲여성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여성 교육 연구결과와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등이 있다.

또한 '가족정책의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출처: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www.ngonews.co.kr> 2005-01-03

◇ 소식과 소식

- ◆ 10월 22일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 10월 22일 돌봄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 ◆ 10월 25일 일한보육교류회의 선생님들이 2주간 한국연수가 있었습니다.
- ◆ 11월 2일 대전어민회에서 여연 노동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노동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04년 노동위 사업평가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 11월 3일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방과후보육법 제정을 위한 TF팀」(이하 방과후 TF팀)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방과후 TF팀」은 한국여연, 한여노협, 부스리기복지선교회, 한국보육교사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 ◆ 11월 3일 일한보육교류회 부산보육시설연수 교류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 ◆ 11월 5일 여성평화의집에서 진행된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포럼」(이하 육아포럼)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정아 정책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11월 5일 한일보육교류일본연수팀 격려단과의 간담회가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 ◆ 11월 5일 돌봄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 ◆ 11월 5일 한일보육교류연수를 마치고 평가회의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 ◆ 11월 6일 부산지부에서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보육철학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보육철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서정은교육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 ◆ 11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과 이윤경 공동대표가 만나 보육예산심의 건 등 국회

차원에서 보육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 11월 8일 이윤경 공동대표, 이선주 사무국장은 서초구립어린이집교사들과 학부모이 요청한 서초구립어린이집 정상화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 11월 9일 보육행정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11월 9일 노동연구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진회의가 있었습니다.
- 이 연구는 여성부의 연구용역으로 본회가 연구기관으로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 ◆ 11월 9일 보육노조건설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 ◆ 11월 11일 여연 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11월 15일 서울시보육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육단체연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보육단체연대회의의 지속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각 단체 신규임원선출이후 신임 임원진으로 지속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 ◆ 11월 19일 보육노조건설기금마련을 위한 주점이 있었습니다.
- ◆ 11월 23일 노동연구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진회의가 있었습니다.
- ◆ 12월 2일 새싹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여연 송년의 밤 행사에 이윤경, 김명선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5일 대전에서 총준위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6일 교육정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12월 7일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연 노동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05년 여연 노동위 활동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 12월 8일 중앙상근자 중 이선주 사무국장과 이윤경 공동대표의 정기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 ◆ 12월 8일 노동연구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자문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9일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방과후 TF팀'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9일 여성평화회의집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10일 보육지원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하여 경희대에서 열린 보육포럼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보육교사와 아동 돌봄의 관계로 만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 12월 14일 노동연구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진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15일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진행된 '육아포럼'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정아 정책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은 현진권박사(전 조세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12월 16일 교육위원회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 ◆ 12월 20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여성부 보육정책국장 등을 면담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 12월 21일(화) 중앙보육정보센터 주최 '보육시설 급간식 실태조사' 자문회의에 본 회의 서정은 전문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 12월 23일 여성평화회의 집 사무실에서 총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 05년 1월 6-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체 총회에 이윤경, 김명선 공동대표와 이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새로운 여연 대표로 남윤인순 상임대표, 정현백, 박영미 공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 ◆ 1월 11일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1월 12일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방과후 TF팀'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1월 7일 돌봄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으로 현장연구모임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장연구모임을 진행해 주신 윤선영교수님과 기록자로 수고해주신 오윤정선생님, 그리고 함께한 모임성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 1월 13일 2004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우수단체 시상식에 한국보육교사회의 [보육운동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힘키우기사업]이 일반과제부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 ◆ 1월 15일 한국보육교사회 제9차 정기총회가 숭실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4년 10월7일부터 05년 1월17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후원회비>

원명순님 1만원	신주영님 1만원
송순우님 1만원	김세희님 1만원
전정옥님 2만원	한상원님 2만원
정송희님 2만원	장성일님 3만원

임태형님 3만원	백선희님 3만원
오영숙님 3만원	김정윤님 3만원
김경인님 3만원	한만우님 3만원
김동현님 3만원	하운하님 3만원
신현미님 3만원	박선하님 3만원
김명미님 3만원	장혜자님 3만원
주로미님 3만원	김영옥님 3만원
최영신님 3만원	양은희님 3만원
이준구님 3만원	정영하님 3만원
조선경님 4만원	이지수님 4만원
김현빈님 4만원	이미화님 4만원
김영화님 5만원	김인숙님 5만원
권성춘님 6만원	이현경님 6만원
남명자님 6만원	이희경님 6만원
김민정님 6만원	오경숙님 6만원
이 옥님 6만원	안명희님 6만원
김수애님 8만원	홍현희님 8만원
유희정님 8만원	정송희님 8만원
김종원님 9만원	오선영님 9만원
권혜진님 9만원	박영수님 15만원
조인숙님 15만원	최순옥님 20만원
새쌍둥이어린이집20만원	
지은희님 30만원	김은주님 15,000원
김진명님 15,000원	이미정님 15,000원
신아령님 15,000원	김숙희님 15,000원

<기타>

추석상여금 지정후원금 오윤정님 20만원
 보육노조설립후원금 서현경님 20만원
 서은희님 12만원, 안경자님 5만원
 평생희비 전경숙 10만원

<자료회비>

햇빛어린이집 삼도어린이집 울산시보육정보센터
 새세대어린이육영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귀중한 후원금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한국보육교사회는 앞으로도 이 땅의 아이들이 좀더 행복한 아동을 보낼 수 있기 위해, 보육교사가 행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편집후기



2006년 한국보육교사회 이준영 대표 취임식

좌로부터 박부자운영위원, 서은화공동대표, 박은아운영위원, 박갑신운영위원, 김규운운영위원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우리네아이들 신년호가 많이 늦었습니다. 제9차 총회를 앞두고 총회의 분위기를 담아 보내드리고자 해서였는데 우리네아이들 기다리시느라 목이 길어지셨을 독자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네아이들은 우리 회의 보육의 지향을 담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관지입니다. 우리네아이들 기획에 도움을 주실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늘 열려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우리네아이들 기획단에 류지민 회원과 이성봉회원이 함께하십니다. 우리네아이들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우리네아이들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우리네아이들의 재미에 흠뻑 빠진 이웃이 반송도 안하고 슬쩍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네아이들이 여러분 두 손에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소변경이나 배달사고시 주저 말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교사 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 대월 1만원+매(연회비 12만원과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이 되면.....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면.....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2-2275-8505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